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의 지형관광자원에 대한 연구

김 종 은*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연구지역 개관	Abstract
III. 지형관광자원별 특성분석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목적

연구지역인 월악산 지역은 내무부(1992)에 의하면 198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제 17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충청북도 제천군, 단양군, 증원군, 괴산군과 경상북도의 문경군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2개도 5개군에 걸쳐 285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은 소백산과 속리산의 중간에 위치한 산악관광지로서 수려한 계곡과 암석대와 사적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월악산(1,097m), 용두산(1099m), 하설산(1028m), 문수봉(1162m)등의 산봉우리들과 월악계곡, 송계계곡, 울창한 산림, 폭포, 기암괴석등이 우리나라 최대의 산악관광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국립공원 20개 지역에 대하여 이용밀도와 접근도에 관하여 연구한바 있으나, 이제부터는 자연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지형경관을 분석 실시하여 관광자원해설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립공원 이용밀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¹⁾ 본 논문에서는 국립공원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2. 관광식음료경영연구

으로 지정된 월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지형적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관광자원해설능력을 고취시켜 주기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연구방법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의 자연경관 특색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1:50,000지형도와 지질 구조도를 기본으로 정리하고, 관광로 및 등반로를 따라 수차에 걸친 현지 답사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지형도와 지질도에서는 관광명소(관광자원)가 표시된 곳을 중심으로한 국립공원 대상지역 범위 내에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만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자료에 의하여 구분하고, 관광자원의 분포적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등고선과 관련된 관광자원 분포도를 작성하고 지형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지형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경관 형태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II. 연구지역의 개관(概觀)

1. 지형관광자원

월악산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되어 소백산,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성을 이루고 있는 소백산맥 중북부에 위치한 산악관광지로서 우리나라 대표적 지형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충주댐 일부를 끼고 호반과 산악경관과 사적지가 복합되어있으며, 타 공원에 비하여 송계 계곡, 덕주 계곡, 상선암 일대의 공원 내부로 관통도로가 발달되어 관광자원의 이용도가 높다.

이 지역은 화강암이 차별침식을 받아 형성된 만장년기에서 노년기지형으로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산봉우리는 험준하고 계곡은 협소한 긴 골짜기를 이루면서 많은 암반이 노출되어 모식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모식적 지형 때문에 신라 시대에는 월형산(月兄山)이라고도 불렸다. 한편 산악계곡을 따라 많은 사적지가 분포하고 있어 인접 관광지와 연계되어 중부내륙관광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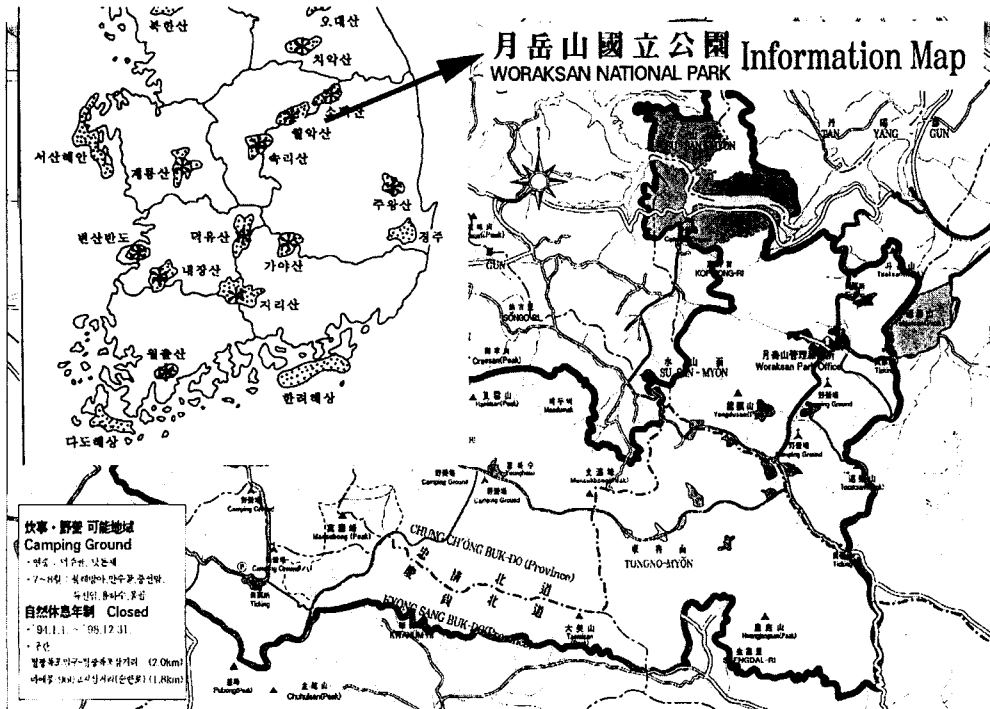
지맥(地脈)과 계곡의 방향은 대부분이 지질 구조와 암석의 질 및 지층의 절리 구조 방향

1) 김종은. 1995. 우리나라 전국 산악국립공원에 관한 월악산 지역의 이용밀도와 접근도 분석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산악국립 공원 관광지의 이용밀도 분석 연구)

을 따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문수봉을 비롯한 높은 봉우리의 산악지대는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변성 퇴적암류가 분포되어 장년기 후기 지형을 부분적으로 발달시키고 있으며, 기암괴석이 노출된 평탄면도 나타난다. 한편 저지대 및 계곡은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저항력이 낮은 화강암류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심한 차별침식과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노년기 지형의 계곡이 발달하게 되었다.

계곡에서 흘러가는 수계(水系)는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호반관광지를 형성한다.

특히 계곡과 산악지역의 암반들은 두부침식과 하방침식이 왕성하게 작용하여 V자형 계곡과 폭포, 암반 등을 발달시키고 하안지역의 산록면에는 소규모의 층적 평야가 발달하여 과수원도 발달하게 되었다.(그림1. 참조)



〈그림 1〉 월악산 지역의 관광경관 분포도

1. 용도지구 지정 구분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자

4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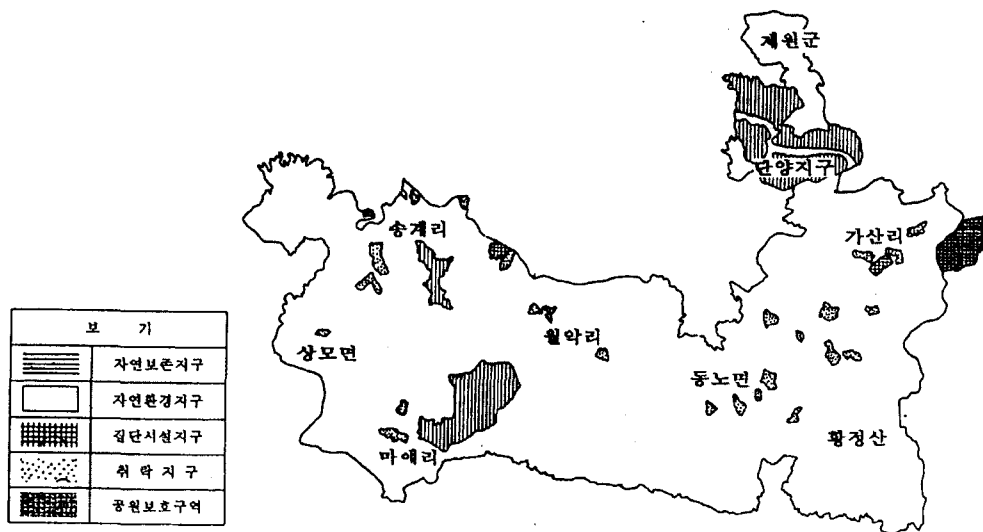
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경정하도록 관광법류 제 16조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용도지구 결정은 수려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설정 개념을 기준으로 공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지정현황을 살펴 보면 총면적 6,473,113km²중 자연보존지구 553,992 km²로 8.6%, 자연환경지구 5,790,509km²로 89.4%, 취락지구 101,994km²로 1.6%, 집단시설지구 25,959km²로 0.4%로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가 가장 적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총면적 284,500km²중 자연보존지구 20,580km²로 7.2%, 자연환경지구 259,240 km²로 91.1%, 취락지구 3,990km²로 1.4%, 집단시설지구 690km²로 0.3%로 집단시설지구가 가장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공원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총면적의 10% 구성비를 나타내는 반면에 월악산 지역은 1.2%에 불과하다.²⁾

특히 연구지역의 용도지구 구성비는 전국 국립공원 구성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 보존지구가 7.2%(전국 8.6%)로 약간 낮게 구성되어 있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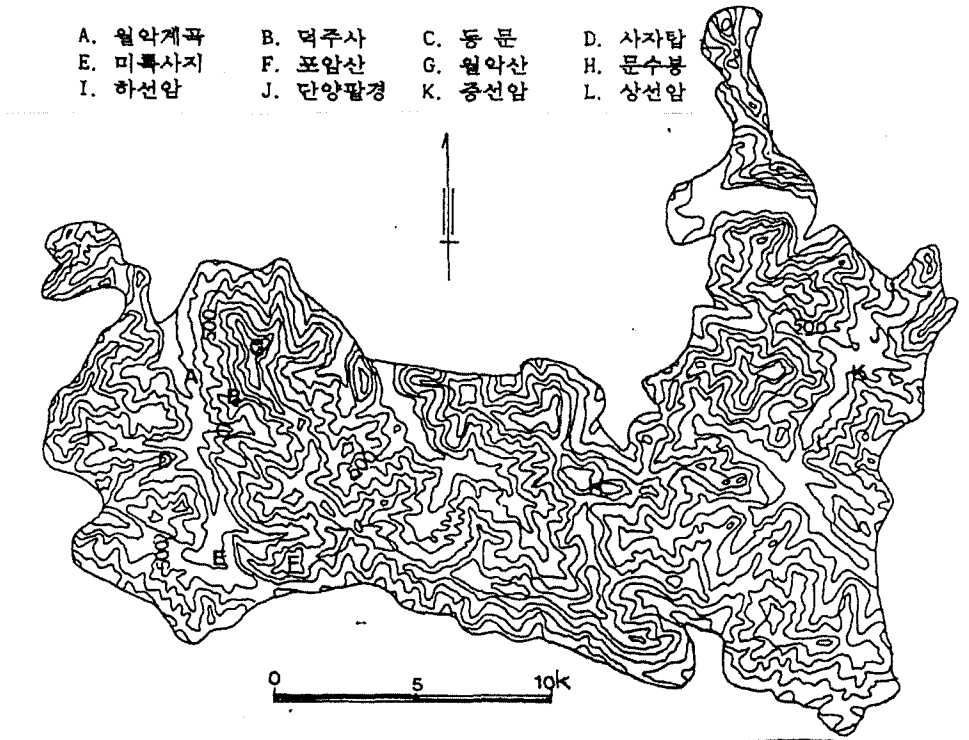


〈그림 2〉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도

2) 한국국립공원 협회. 1998. 국립공원 p34. 전국 국립공원 용도지역 구성비에 비하여 월악산 지역의 용도 지역 구성비를 산출하여 월악산 국립 공원의 용도지역 구분도를 작성하였다.

Ⅲ. 지형 관광 자원별 특성 분석

월악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경관(지형관광자원)들은 덕주계곡을 따라 탐방하는 관광코스와 송계계곡을 따라 탐방하는 관광코스로 구분되는데 주로 이 계곡을 따라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 모식적 지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그림3. 참조)



〈그림3〉 지형분석에 따른 월악산 관광자원 분포도

1. 송계계곡

송계계곡은 송계리에 위치한 노송이 우거진 장장 8km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데서 비롯된 관광명승지이다. 이 계곡은 화강 편마암이 차별침식과 풍화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노년기 계곡으로 잔구성 암반이 노출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월악산 서쪽 기슭을 흐르는 계곡에 모식적 암반이 발달된 비경을 송계 8경이라고도 부른다. 즉 자연대, 팔랑소, 월광폭포, 수경대, 학소대, 양폭대, 외룡대와 월악영봉을 포함한 모식적 지형을 말

6. 관광식음료경영연구

한다.

특히 이곳은 울창한 숲과 산성 및 사적지가 분포되어 여름피서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지로 적합하다.

2. 팔랑소

湖沼는 유로방향을 따라 12km폭으로 길게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구혈이다. 형성된 원인을 보면 화강암의 절리 간격이 넓은 화강암 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식과 굴식으로 인해(홍수 때는 다양한 크기의 역들이 굴러가면서 발생하는 마식과 굴식) 생긴 구혈을 팔랑소라고 한다.

팔랑소의 특성은 미륵사지에서 송계사이에 맨 먼저 나타나는 하나의 湖沼이다. 화강암의 기반암에 만들어지는 12m폭 쟁반형으로 만들어진 구혈이다. 구혈형성의 중요원인은 홍수 때 흘러갔던 다양한 크기의 자갈들에 의한 마식과 굴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양쪽 능선에서 떨어지는 3m크기의 불국사 화강암의 낙석들이 그 주변에 산재해 있다.

3. 와룡대

폭 30m 길이 60m의 화강암의 암반으로서 부분적 암반의 높이 차이가 1.2m, 경사 3°이하의 화강암의 암반으로서 1.2m폭의 두께로 만들어진 판상의 절리들의 암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파괴되어 있는 곳이다.(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유실되어진 곳) 이 곳의 판상절리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층층으로 쌓여 있어서 와룡대 밑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폭포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소규모적인 구혈이 발달하고 있다.

와룡대 하상 암반 표면은 다른 지역 화강암과 마찬가지로 굴식과 마식으로 인해 매끄럽게 되어 있다. 와룡대는 수평의 판상절리로 폭이 35~40m이고 하상에서의 높이가 7m이다. 중앙의 파괴된 부분이 하부가 5m, 윗부분으로 가면서 12m정도의 나팔모양으로 밑이 좁고 위가 넓은 상태로 파괴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와룡대의 특징은 판상의 절리가 위쪽은 10~20m의 폭으로 굉장히 얇고, 밑부분은 3m정도의 하나의 암괴로서 판상의 수평절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말단은 90°각도의 수직단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바로 그 밑 부분은 구혈이라기 보다는 폭포로 구성되어 있다. 폭혈의 크기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때는 15~20m규모의 폭포이

다. 물론 암반의 일부가 매끈하게 나타나 있지만 주변에서 흘러 온 암괴가 같이 쌓여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판상의 수평절리의 중앙부가 파괴되어서 물이 흐르는 유로가 만들어지고 이 판상의 말단부는 수직절리를 통해서 90° 각도의 斷岸를 이루고 있는데 중앙 일부가 파괴되어 움푹파였기 때문에 폭포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류상대로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밑 부분은 약 5m 윗부분은 12m로 나팔모양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와룡대의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의 경사는 약 40° 정도이고 폭은 5m정도인데 중앙부가 40° 정도의 급류의 물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한 물의 흐름일지라도 중앙부에서 움푹 물의 양이 제일 많고 세며, 폭이 두껍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침식력, 파괴력이 강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팔랑소에서 이 와룡대까지의 하상경사는 5~6°가 되고 이 주변에서 떨어진 낙석들이 하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주변 산지의 높이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석들이 규모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4. 망폭대

화강암 지역의 암석단애이다. 폭이 30m 높이는 50m이다. 이 지역도 윗 부분을 보면 완전한 사각형 모양의 암괴들로 떨어져나가 있으므로 토르라고 볼 수 없다. 토르라면 둥그렇게 되어야 한다. 토르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노출이 되어진 것이다. 이곳의 절리는 ㄱ자 모양으로 된 격자상 절리이다. 그래서 네모꼴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 있다. 도봉산, 북한산, 월출산과 비교해 보면 수직절리나 수평절리의 폭이 굉장히 좁다. 이것은 동일한 화강암이 같은 시기인 중생대때 만들어진 화강암이라 할지라도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광물들의 입자크기가 더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수직의 단애로 이루어진 것은 판상의 수직절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도 하얗게 보이는 곳은 최근에 낙석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준다.

오른쪽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크기의 암봉이 있다.(망폭대와 거의 동일한 크기) 동남쪽에 동일한 크기의 쌍둥이 모양으로 된 30m 크기의 간격을 두고 수직의 암석단애가 만들어져 있다.(그 사이의 폭이 30m이다.) 망폭대는 쌍둥이 형태로 되어 있지만 완전한 판상의 격자상 절리로서 비교적 규모는 1.5m 정도로 작다. 망폭대는 수직과 수평의 ㄱ자모양으로 만나는 격자상 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수직단애가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곳 양쪽에는 토르도 발달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옛날에는 동위면에 수평절리가 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변 지역들을 보면 암괴들이 돌탑

8. 관광식음료경영연구

모양으로 되어서 두부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기계적 풍화현상이 나타난다.

5. 수경대

수경대와 학소대는 덕주골 계곡에 나타나는 소규모적인 폭포이자, 폭호를 말한다. 수경대에 있는 폭포의 경사는 약 40° 경사이고 폭이 5m, 높이 7m이고 그 밑에 나타나는 폭호는 15m 크기의 거의 원형의 폭호로 구성되어 있다.(돌맹이가 같이 섞여 있다.) 폭호의 말단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는 곳에 있는 암반은 와룡대와 마찬가지로 표면에서 10~20cm폭의 수평절리로 되어 있으며, 10츠~20츠 폭의 얇은 판상 수평절리들이 겹겹이 이루어져 있어 거기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데는 양 3m 폭호로부터 내려간다.

6. 학소대

덕주산성의 성문이 있는 곳이 학소대이다. 동남쪽으로 20m폭과 100m깊이의 애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학소대라는 곳도 망폭대와 마찬가지로 30m폭과 50m높이의 수직의 암석단애인데 50cm~1m 폭의 판상의 수직·수평의 격자상 절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직단애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만이 밑부분 하상주변에서 20m~30m내외의 판상 수평절리들이 집단으로 발달된 경관이 나타난다. 특히 판상의 얇은 절리들이 밑부분에서 나타난다. 얇은 판상절리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전체적인 폭은 4m이다. 학소대의 동쪽에는 학소대보다 규모가 작은 수직단애의 암괴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중력에 따라 밑으로 이동되어서 낙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이루고 있다.

7. 자연대

동계천이 송계로 흘러가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와룡대와 마찬가지로 하상에 나타나는 암반을 자연대라고 한다. 즉, 판상의 수평절리가 두꺼운 상태로 나타나서 높이의 차이는 있더라도 거의 30m직경의 동일한 화강암 암반으로서 약한 부분은 마식과 굴식으로 파괴되고 경암부만 남아서 노출되어 있는 원래 하상 기반암의 암반을 자연대라 한다. 자연대 주변에는 주변 산능선이나 하천을 따라서 운반되어 온 낙석들과 표석들이 원래의 기반암과 같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하상암반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자연대라고 하는 화강암의 암괴도 수직절리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평의 2~3°의 경사를 가진 수평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8. 동달천의 하천 전체의 특성

미륵사지에서 송계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망폭대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폭이 좁다. 팔랑소부터 자연대까지 20m폭으로서 5~6도의 하상경사를 이루고 있는 비교적 급류하천이다. 이 하천에 있어서는 기반암괴가 노출되어진 부분은 전체 하천의 길이로 보았을 때 별로 많은 것은 아니다. 기반암괴가 하상을 이루고 있는 곳은 모두가 자연대, 와룡대 등의 이름이 붙어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낙석과 상류지역에서 흘러왔던 표석들이 하천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천의 양쪽으로 산지가 있는 곳은 사절리가 나타난다. 산지 쪽으로 흐르는 곳은 판상의 사절리가 나타나 있는 부분적으로는 20cm두께 내외의 판상의 수평절리들의 집단이 이루어진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다.

9. 선미대

판상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경사 : 2도) 화강암의 암반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폭이 약 25m, 높이 15m의 암반을 말한다. 그 상부에는 5m 크기와 7m크기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낙석이 2개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 갈래의 계곡에서 (Y자 모양에서) 물이 만나는 곳이다. 바로 밑에는 폭 10cm크기의 원형에 가까운 구혈과 폭호의 중간형태를 이루고 있다. (밑은 암반이고 주변에는 돌맹이가 섞여있다.) 구혈과 폭호의 중간형태의 담이 만들어져 있고 와류 현상이 나타나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암반과 평상시에 1m정도의 낙차를 이루고 있다.

10. 청벽대

이 지역은 계곡 양쪽에 높은 산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낙석이 많다. 청벽대는 20cm폭의 판상의 수평절리로 된 암반이다. 경사는 2° 정도 낙차가 1.5m되는 폭포형태이다. 그런데 이곳은 5개의 마름모꼴을 붙여놓은 모양으로 암석의 절리를 따라 깨어져서 만들어진 곳이다. 중심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마름모꼴 형태의 동일한 크기의 5개의 암괴가 층

10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을 이루고 있어서 폭포를 만들고 있는 형태이다. 그것은 판상의 격자상 절리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다. 중심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마름모꼴 형태의 동일한 크기의 5개의 암괴가 층을 이루고 있어서 폭포를 만들고 있는 형태이다. 그것은 판상의 격자상 절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 암반의 상류쪽으로는 전체적인 길이는 약 30m이다. 폭포밑에 4m직경의 암괴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폭호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벽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쪽으로는 암반위에 2m크기의 낙석들이 2~3개가 있고 청벽대 하부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약 4~5° 판상의 수평절리 암반이 계속 나타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낙석들이 암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청벽대이다.

11. 용화선대

용화선대는 20m폭의 용화계곡과 10m폭의 대관계곡이 Y자형으로 만나는 지점으로서 4° 정도의 경사를 가진 판상의 수평절리가 양 계곡을 연결하면서 약 50m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20m폭으로 부채꼴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길이는 약 30m이고 경사는 3°~4° 정도로 된 판상의 수평절리의 암반인데 20~50m두께의 판상절리들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계단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2. 관폭대

관폭대는 용화선대 바로 밑의 좌측 산 및 계곡에 담홍색의 흑운모 화강암의 관상절리가 1m폭의 두께로 발달하면서 약 150m길이를 발달하고 있다. 관폭대의 좌측에 있는 판상의 암반들은 하천이 현재 흐르고 있는 지점에 발달한 수직절리에 따라서 유수작용으로 파괴가 되어 1~2m높이의 층으로 계속 발달되어 있다. 150m길이를 관폭대의 암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역의 물이 흐르는 담(폭호)의 형태도 암반과 평행하게 거의 10m폭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끝나는 지점에서는 15m크기의 폭호를 형성하고 있다.

13. 수곡용담

수곡용담은 이 계곡 최대의 폭포로서 낙차가 약 7m인데 암반의 폭이 약 25m되는 7m두께의 45° 각도로 만들어진 폭포이다. 암반의 밑부분이 판상의 얇은 절리들도 되어 있기 때

문에 1m정도가 밑으로 풍화의 빠른 진행으로 깎여 나타내고 폭호는 폭호의 규모에 비해서 약 5m규모의 크기로서 작은 편이다.

그 원인은 남쪽능선에서 떨어진 10m크기의 원형에 가까운 낙석이 낙수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석의 상부지역에는 절리를 통해서 커다란 소나무가 성장하고 있고 폭호밑으로 20m지점에도 5m크기의 낙석이 위치하고 있어서 3m높이의 낙차를 이루어 또 다른 낙석으로 인한 소규모적인 폭포가 만들어져 있다. 폭포의 상부지역은 25m폭의 암반이 완전하게 절리도 없이 유수에 의해 마식과 굴식으로 매끈한 면으로 나타나면서 성류를 향하여 30m높이 지점까지 4° 각도로 암반이 계속 발달되어 있고, 그 지점에서 또한 1m높이와 15m폭의 낙차로 이루어진 소규모적인 폭포형태가 발달하고 있어 관광경관을 이루고 있다.

14. 병풍폭포

병풍폭포는 거의 서남동북 방향으로 판상의 수직절리가 5~6m높이로 만들어진 곳으로서 폭은 약 40m이고 완전히 직선상으로 만들어진 병풍모양의 폭포이다. 그러나 끝은 폭호나 구혈이 엇이 기반암이 노출된 상태로 아직은 구혈이나 폭호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병풍폭포가 후퇴하면서 기반암이 노출된 곳으로 물이 떨어져서 30m길이를 지나 물은 흘러가고 병풍폭포의 %, 27m정도로서 기반암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낙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왼쪽 서남쪽의 극히 일부분만 낙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병풍폭포의 단애에는 부분적인 판상절리가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 배후지역의 암반의 폭은 약 5m정도로서 별로 넓은 곳은 보지 못하고 배후 50m지점의 오른쪽 동북쪽에도 20m높이의 강우시에만 형성되는 폭호가 나타나고 있다.

15. 수문동폭포

수문동폭포는 가장 최정상에 있는 자연경관으로서 높이가 약 18m, 폭은 22m정도되는 부분적인 2단 낙수현상이 나타나면서 밑에는 폭 2m정도의 소규모적인 구혈이 만들어져 있고 그대로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다. 낙수현상이 일어나는 단애는 윗부분 90°, 중간부분 70°, 밑부분 80°로 3가지 각도 형태의 단애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20° 각도로서 10m높이까지 암반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지역도 거의 판상의 수평절리가 밑부분부

터 파괴됨에 따라 형성되는 폭포이다.

16. 월악산 영봉

월악연봉은 화강편마암 및 변성암이 오랫동안 차별침식과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기암괴석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한 관광 명산이다. 충주남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신라 때에는 소사(小祀)를 지내던 곳으로도 유명하다.³⁾

노두가 발달하면서 3봉(영봉, 중봉, 하봉)의 암석 바위와 주봉인 국사봉이 웅장하면서도 고위 평탄면에 발달하여 신앙 대상지로 적합하기도 하다.

특히 노송과 낙엽송이 어우러져 골짜기로 흐르는 물은 달빛에 반사되어 바위벽과 조화를 이루고, 산정에 오르면 눈 아래 펼쳐진 크고 작은 고산준령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물줄기는 지형발달에 따른 자연조화가 신비롭게만 느껴진다.



사진1. 송계계곡의 와룡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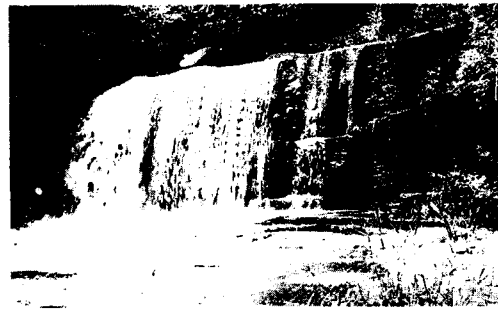


사진2. 송계계곡의 병풍폭포 경관



사진3. 사인암 주상절리



사진4. 수옥정 폭포

3) 국립공원관리공단. 1994. 한국의 국립공원 p106. 소사란 산신제와 같은 소규모의 제사를 말하는데, 이곳은 웅장한 3봉과 큰 바위가 위압감을 주고 있어 신앙 대상지가 되기도 하였다.



사진5. 월악산 원경의 모식적 경관



사진6. 송계계곡의 자연경관

17. 사인암과 운선구곡

사인암은 차별침식을 받아 남아있는 잔구성 지형으로 단양 8경 중 하나이다. 즉, 옥순봉, 귀담봉, 도담삼봉, 석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 8경의 자연경관은 자연적 관광자원성을 띄고 있다. 특히 사인암은 절리를 따라 강한 침식과 풍식작용을 받아 기암괴석이 주상절리를 형성하여 병풍을 두른듯한 지형을 발달시켰으므로 마치 해금을 연상케 하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사인암은 단양에서 경북 예천 방향으로 약 5km 지점의 운선구곡 서쪽에 위치한 덕절산 산록면에 발달한 주상절리 형암벽 경관을 말한다.

사인암이란 명칭은 고려말 우탁이 '사인'이란 벼슬자리에 있을 때 항상 이곳에서 휴양했기 때문에 조선조 성종 때부터 사인암⁴⁾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18. 덕주산성

암반이 차별침식을 받아 분지형 지형으로 발달되어 있으므로 전략 요충지로 뿐만 아니라 사찰 건립조건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신라 때는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였으며, 고려초기에는 미륵사, 덕주사가 건립되었고, 신라 최후의 경순왕의 왕녀인 덕주공주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특히 고려 고종 43년(1022년) 몽고군의 침입시에도 자연적 지세에 항복하여 공격을 포기할 정도로 성곽지형이 발달되었다.

4) 사인암이란 명칭은 고려말 벼슬인 사인에서 비롯되어 사인 벼슬을 가진 우탁이 암벽 밑에서 휴양을 즐겼다고 하여 조선조 9대 성종 때 임제광이 사인암이라 명명하였다고 함.

IV. 결 론

월악산은 다른산에 비교하여 암석이 노출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월악산 정상은 1097m높이고 봉우리는 중앙 봉우리, 아래 봉우리, 쪽두리 봉우리의 3개 봉우리로 되어있다. 그런데 산비탈 수직 절벽의 가장 높은 곳이 150m이고, 3개 봉우리 전체 둘레는 4km이다. 이들 봉우리는 퇴적암이 변화한 암석이기 때문에 곁을 따라 조각 조각 부스러지고 있다. 이 지역은 모식적 암석지역인 악산인데 여기에 삼림이 우거지고 사적지가 분포하여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월악산은 정상으로부터 동남쪽으로는 수직절벽을 이루고 있고, 중간 봉우리, 아래 봉우리, 쪽두리 봉우리는 하나의 돌덩어리(암괴)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는 세월이 지나면서 차별 풍화 침식으로 분리되게 된 산이다.

월악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경사도가 70°에 가깝다. '신록사' 쪽에서 등반하는 산지의 밑부분은 완만(평평)하지만, 중간부터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돌덩어리가 많이 나타난다.

월악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화강 편마암과 변성암이 많기 때문에 낙석(떨어져 내려온 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계곡에는 계속하여 암석이 노출되어 아름다운 경관(Landscape)을 형성하고 있다.

돌덩이의 크기는 60cm이하이며, 월악산 주변의 등산로에 나타나는 경관을 주로 송계계곡, 덕주계곡, 용화계곡을 중심으로한 계곡 주변에 발달한 산악경관이 자연 관광자원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Abstract

Wolaksan is a national park which has beautiful scenery with exposed rocks. The mountain is 1097 meters high and has 3 tops which are Jungang(the center), Arae(the lower part), JJokduri. The highest point of the vertical cliff is 150m from the earth and the total circumferences of three tops is about 4km. These tops are easy to break by grains because they are from sedimentary rocks. Wolaksan is a bad mountain because the area is a Mosikjuk rocky

area. However, the area around Wolaksan is thickly wooded and has many achievements and it makes good scenery.

From top to southeastern, there are vertical cliff. The tops are originally from one but these are divided by partial weathering corrosion. The slide of path to Wolaksan is about 70°. The lower part of the mountain from Shinroksa to top has a gentle slope but there are a steep slope from the middle. Especially, the area has many rocks. The rocks of Wolaksan are almost granitic-gneiss or metamorphic rocks so it often fall down. Because of these fallen rocks, its valleys have great landscapes. The size of rock is less than 60cm. The landscapes of valleys such as Songgye, Dukju, Yonghwa are the main natural tourism resources.

참고문헌

- 김종은, 1999, 관광한국지리, 삼광출판사, P157.
- 김종은, 2000,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 관광지리연구, 한국관광지리학회, P56.
- 김종은, 2001, 설악산국립공원의 이용밀도 연구, 관광개발논총, 한국관광개발학회, p54.
- 고의장, 1995, 국립공원 치악산 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분석 연구, J. Natural Science 2, 세종자연과학 연구소, p45.
- 고의장·이승곤, 1996, 국립공원 가야산 지역의 관광지형학적 연구, 관광지리학연구, 한국관광지리학회, p131.
- 박석희, 1985, 국립공원의 관광위락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 한국관광학회 9호, p112.
- 국립공원협회, 1992, 국립공원 54/55, p14.
- 고의장, 2002, 지리학연구, 지리산국립공원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p114.
- 국립지리원, 1995, 월악산지형도(1:50,000)
- 손치무외 4인, 1964, 한국지질도, 충청북도 도폭.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4, 한국의 국립공원(월악산편), p107.